호평받는 각종 세척제와 물비누제품들

—룡악산비누공장에서—

풍치수려하고 물이 좋은 곳으로 유명한 룡악산기슭에 룡악산비누공장이 자리잡고있다.

룡악산비누공장에서는 원료준비, 진공유화, 물처리, 혼합교반, 숙성, 주입, 포장 등 모든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 가루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통합생산체계도 훌륭히 구축해 놓았다.

공장에서는 원료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는 생산의 전공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척력, 내한성, 내열성, 점도, 유효물함유량 등 위생안전지표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제품의 질을 과학적으로 담보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비누들과 세척제들은 질과 위생안전성에 있어서 높은 수준에 있다.

가장 인기있는 제품은 옷물비누이다.

탈색방지효과를 가진 여러가지 재료들과 생물분해효소를 첨가한 각종 옷물비누제품은 피부와 섬유의 손상이 없고 세척력 또한 비할바없이 높은것이 특징이다.

몸물비누 역시 누구나 찾는 인기제품이다.

세척효과가 좋은 계면활성제에 기포안정제, 피부보호제, 방부제, 향료, 색감 등 보조약재들을 섞어 만든 몸물비누는 피부의 영양을 개선하고 로화를 방지하며 피부보호작용에 도움을 준다.

레몬향그릇세척제와 생강향그릇세척제는 적은 량으로 놀라운 세척효과를 나타내는것으로 하여 또 그것들대로 사용자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찬물에서도 여러가지 그릇류에 묻은 잔류물과 기름기를 깨끗이 세척하며 피부에 대한 손상이 없다.

물소비량도 적고 사용후 광택성을 보장하는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에서는 세계적발전추세에 맞게 제품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것과 함께 개성고려인삼을 비롯한 전통적인 천연약재들을 리용하여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각지의 상업망들에서 룡악산비누공장 제품들이 판매되고있는데 그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은 대단히 좋다.

본사기자 리철민

100여개의 참매번식지 새로 조사확증

공화국 각지의 동물보호구들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진행한 조사과정을 통해 100여개의 참매번식지를 새로 발견하였다.

이번 조사과정에 강원도의 양암산동물보호구와 황해북도의 학봉산동물보호구에서 알을 품고있는 암컷과 여러마리의 새끼들, 둥지, 수림속을 날아다니는 한쌍의 엄지참매를 발견함으로써 참매가 전반적지역에서 번식도 하고 겨울도 나는 사철새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북부지대의 오가산자연보호구와 포태산동물보호구 등지에서도 소나무와 이깔나무를 비롯한 키나무우에 둥지를 튼 참매들을 관찰함으로써 동물보호구들의 번식환경이 보다 유리해지고 참매의 마리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하였다.

특히 2015년에 설정된 함경남도 덕성군에 위치한 덕성참매보호구에서 보기 드물게 최고 5개의 알을 낳은 참매의 둥지를 비롯하여 수십개의 참매둥지들을 발견함으로써 이 지역이 참매증식에 대단히 유리한 원종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론증하였다.

본사기자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풍속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의 하나이다.

우리 민족은 이웃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면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고 경사가 있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주었다. 또한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이웃간에 서로 부족되는것이 있으면 자기의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썼다.

이웃과의 화목을 중시하고 꽃피우는 이러한 아름다운 풍속은 살림집을 짓고 사는 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우리 민족의 살림집풍속을 보면 살림집들이 그 어떤 류형을 막론하고 외부와 폐쇄된 측면을 찾아볼수 없는 개방적인 형식으로 되여있다.

매 방들은 밖에서 안으로 직접 들어갈수도 있고 나올수도 있게 되였다.

외줄로 된 외통집은 물론 량통집인 경우에도 모두 같다.

이렇게 살림방마다 문을 낸것은 친척들만이 아니라 이웃이나 동네사람들과 서로 도와주며 다정하고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미풍량속의 발현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일을 하려고 들로 나갈 때나 이웃에 마실을 다닐 때에도 집의 문을 채우지 않았다.

우리 민족이 살림집의 방을 개방하는 형식으로 문을 만들고 생활하였으며 그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여왔음을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웃간에 서로 화목하게 사는 도덕을 보다 중시하고 여기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면서 살림집을 짓고 살았다.

또한 집을 짓고 사는데서도 이웃과 허물없이 다정하게 사는 아름다운 풍습을 창조하고 세세년년 계승하였다.

그것은 이웃들과 화목하게 사는것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였다.

본사기자

바줄당기기

같은 인원수의 두 단체가 바줄을 잡고 마주서서 제정된 시간안에 서로 많이 끌어당기기를 겨루는 민족체육종목이다.

바줄당기기는 먼 옛날부터 여러 지방들에서 널리 진행하던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당시 줄당기기는 주로 벼짚으로 굵게 꼰 원줄(길이 300～400m)에 약 1m 간격으로 여러개의 동줄(길이 3～4m)을 달아 만든 육중한 줄 두개를 서로 마주 련결하고 부락호상간 힘을 겨루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줄은 매개 부락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며 경쟁에서 지는 경우에는 그 줄을 떼우게 되여있었다.

바줄당기기는 때와 장소, 대상 등에 구애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는 대중적인 운동종목으로서 팔과 다리를 비롯한 온몸의 힘을 키우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본사기자

조선봉건왕조시기 바줄당기기(복원도)

력사유적

왕건왕릉

개성시 해선리에는 고려태조 왕건의 무덤인 왕건왕릉이 있다.

릉문으로 들어서면 제당과 비각이 있다. 제당안에는 왕건의 화상이 있으며 그밖에 고려를 창건하고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계승하여 민족을 통합하여나간 왕건의 생애에서 의의있었던 장면들을 그린 그림들이 있다. 2개의 비각안에는 각각 왕릉의 연혁을 기록한 릉비와 왕릉을 건설하고 보수정비한 내용을 기록한 릉비가 있다.

제당과 비각을 지나면 높은 단우에 전형적인 고구려식돌칸흙무덤의 모습을 갖춘 왕건왕릉이 있다.

왕릉(무덤)의 바깥둘레에는 쥐, 소, 범 등을 새긴 12각의 병풍돌을 세웠으며 그밖으로 돌란간을 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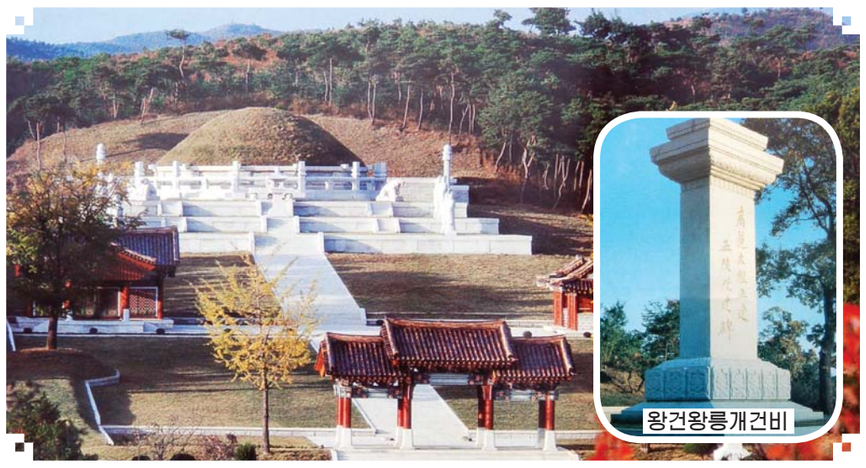
무덤무지의 높이는 8m이며 병풍돌의 대각직경은 19m이다. 왕릉의 네 귀에는 돌범이 놓여있으며 앞에는 상돌과 망주석, 돌등 등이 있다. 왕릉이 있는 곳보다 조금 낮은 둘째 단과 셋째 단에는 왕건을 따라 통일국가수립에 공헌한 8명의 측근신하들이 4명씩 량켠에 갈라서있다.

왕릉의 무덤칸입구는 돌문으로 되여있다. 돌문을 열고 들어서면 문길(안길)이 있다. 문길을 지나면 무덤칸이다.

무덤칸내부는 중심에 큰 판석으로 된 관대가 놓여있고 좌우벽 체아래에는 유물을 올려놓는 긴 대가 있으며 동, 서, 북쪽의 세 벽에는 청룡, 백호, 현무도, 참대와 소나무, 매화를 비롯한 그림들을 그린 벽화가 있다.

왕릉과 그 주변에서는 옥띠고리, 띠고리모양의 금구, 국화무늬박이청자잔, 청동주전자, 금동좌상, 금동장식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물들이 알려졌다. 왕관을 쓰고있는 금동좌상은 실재한 왕건왕을 형상한 금속공예품으로서 귀중한 력사문화유물이다.

김진호



왕건왕릉개건비

청명과 민속

청명은 우리 겨레의 생활과 깊은 련관을 가지고있다.

청명날 우리 선조들은 산에 올라 조상의 무덤에 잔디도 입히고 겨우내 낮아진 봉분에 흙을 얹어주면서 정성껏 손질하고 조상에 대한 조의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때에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쓰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천묘 또는 이장, 개장이라고 하였다.

청명은 또한 한해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지난날에는 청명을 전후하여 농촌들에서 올벼종자를 물에 담그었다가 모판에 뿌리였고 북부산간지대에서도 그 시기에 늦감자를 심었다.

우리 선조들은 청명이 되여오면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뜨락의 꽃밭에 봉선화, 백일홍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꽃씨를 뿌리였으며 집주변에는 과일나무들을 심었다.

옛날에는 청명날에 불을 소중히 여기는데로부터 불씨를 나누어주는 풍습도 있었다.

그네뛰기도 대체로 따스한 봄기운이 약동하는 청명때부터 5월까지 많이 하였다.

봄날의 청신하고 환희로와진 마음과 함께 하늘을 향해 훨훨 날아오르는 그네는 모두가 바라는 풍년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명에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한해농사의 결속을 앞두고 햇곡식으로 음식을 지어 지성을 표시한 추석과 함께 조상의 묘를 찾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이 깃들어있다.

올해의 청명은 4월 4일이다.

본사기자

사화

치마폭에 그린 포도송이 (1)

글 박홍준, 그림 채대성

신사임당은 조선의 력사에서 그리 많지 않은 너류화가의 한사람이며 16세기의 큰 학자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리률곡의 어머니이다.

신사임당의 고향은 강원도 강릉이였다.

그는 동해의 경치아름다운 경포대에서 딸만 다섯을 둔 한 평범한 선비의 둘째딸로 태여났는데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고 특히 예술적재능이 뛰여났었다.

그의 아버지는 슬하에 아들이 없는것이 한스러웠으나 그런대로 어린 딸들을 앉혀놓고 글을 가르치는것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이면서 그것을 락으로 삼았다.

신사임당은 그러한 아버지밑에서 글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붓글씨를 익히는 한편 그림그리기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였다.

그는 글공부를 하는 짬짬이 뜨락에 나와 놀다가도 터밭에 날아드는 흰나비, 노랑나비, 범나비들과 울바자에 내려앉는 빨간 고추잠자리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처마밑에 깃들인 제비들과 마당의 대추나무우에서 깍깍거리는 까치들을 자세히 눈여겨보면서 그 모습을 땅바닥에 그려보는데 여념이 없었다.

때로는 마당 한구석에 가꾸어놓은 꽃밭앞에 쪼그리고앉아서 국화와 나리꽃을 그리기도 하고 길가나 밭머리에 곱게 피여나는 민들레며 제비꽃, 메꽃 같은것을 그리면서 시간가는줄을 몰랐다.

그는 아버지가 글씨련습을 하라고 내여주는 종이를 한장, 두장씩 모아두었다가는 그 종이에다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군 하였다.

신사임당은 차츰 나이들면서 더욱 그림공부에 열중하였고 고향산천의 갖가지 아름다운 자연경개를 녀성다운 섬세한 필법으로 화폭에 옮겨놓군 하였다.

그러던 신사임당은 19살되는 해에 리씨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였다. 그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받들면서 집안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갔으며 아들 넷을 낳아 그들을 교양하는데 각별한 정력을 기울였다. (리률곡은 그의 셋째아들이였다.)

이렇게 집안의 주부로서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면서도 신사임당은 그림공부를 계속하여 그 화법이 날을 따라 더욱 원숙해졌다.

어느해 가을이였다. 먼 일가벌되는 집에서 잔치를 한다는 기별을 받고 신사임당이 그 집에 나들이를 간 일이 있었다.

잔치집에는 손님들이 많았고 신부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느라고 안팎이 흥성거리였다.

신사임당도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즐거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일손을 도와주었다.

여기저기서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집안팎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있었다.

그런데 한 녀자손님만은 이야기판에도 섭쓸리지 않고 아까부터 웃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무엇인가 시름겨운 생각에 잠겨있었다. 신사임당보다는 대여섯살아래인 30전의 젊은 녀인이였다.

신사임당은 진작부터 그 녀인에게 마음이 쏠리였다. 처음 보는 녀자인데 옷차림으로 보아 이웃에서 잔치시중을 들어주려고 온 사람같지는 않고 먼데서 자기처럼 나들이온 손님이 분명했다. 아마 이 집과 사돈벌되는 손님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웬 일일가? 즐거운 잔치날에 와서 저렇게 시름겨워하는것을 보니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한 신사임당은 넌지시 자리를 떠서 그 녀인에게로 다가갔다. 워낙 성격이 찬찬하고 인정이 깊은 그였다.

《왜 이러고있어요? 무슨 시름이라도 있으신지?…》

신사임당이 이렇게 조용히 묻자 그 녀인은 몹시 당황해하였다.

《아니예요. 아무 일도 아니예요.》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그 녀인은 다심한 언니처럼 자기를 살뜰하게 대해주는 신사임당의 너그러운 인품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들었다.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나도 알면 못쓰나요?》

신사임당이 재차 물었다. 그제야 그 녀인은 신사임당의 거듭되는 물음에 한대중으로 입을 다물고있는것이 도리여 실례라고 여겼는지 《별다른게 아니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연을 말하는것이였다.

그 녀인의 집은 동대문밖의 왕십리인데 사돈집잔치에 오느라고 이웃집에서 붉은 비단치마를 빌려입고 떠나왔다.

그런데 방금전까지 뒤마당에 숯불을 피워놓고 전을 지지는 일을 거들어주다가 그만 치마에 불찌가 튀였다는것이다.

모처럼 빌려입고온 남의 소중한 비단치마를 못쓰게 만들었으니 녀인으로서는 여간만 걱정이 아니였다.

더군다나 그런 비단치마를 새로 한벌 마련할수만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나들이옷 한벌 변변한것이 없어서 남의 옷을 빌려입지 않으면 안되는 구차한 살림형편에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러니 형님! 이 일을 어쩌면 좋을가요?》

그 녀인은 절반 울가망을 하고 이렇게 말하며 가늘게 한숨을 내쉬였다.

신사임당이 그 녀인의 치마자락을 들춰보니 과연 한쪽귀퉁이에 머루알만 한 구멍이 펑 나있었다. 사연을 듣고보니 참으로 맹랑하고 민망스러운 일이였다.

그러나 신사임당으로서도 잔치집에 나들이 와있는 몸이라 손에 쥔것이 없으니 어떻게 도와줄길이 없었다.

(무슨 방도가 없을가.…)

잠시 속으로 생각을 굴려보던 신사임당은 그 녀인을 데리고 뒤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그 집 식구들은 모두 잔치집에 가고 늙은 할머니 한분만 남아있어 집안은 조용하였다.

신사임당은 주인할머니에게 량해를 구하고 벽에 걸린 검정무명치마를 벗겨서 그 녀인에게 내여주며 비단치마와 갈아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붓과 벼루를 얻어다가 먹을 갈게 하였다.

력사인물

정몽주

고려시기의 관료이며 유학자인 정몽주는 자는 달가, 호는 포은, 시호는 문충이다.

1360년에 문과에 1등으로 합격하였으며 그후 성균관 박사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는 일본에 건너가 왜구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일본측에 요구하였다.

1380년 운봉의 황산전투에 참가하여 왜구를 격멸하였으며 그후 밀직제학으로, 1384년에는 정당문학으로 되였다.

1388년 위화도회군을 계기로 리성계가 정치적실권을 쥔 이후에도 문하찬성사, 수시중 등의 높은 벼슬을 지냈다.

리성계는 당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시할수 없는 존재였던 정몽주를 자기의 왕권탈취음모에 가담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몽주는 나라의 정치, 경제형편을 수습하는데는 찬성하였으나 리성계의 왕권탈취음모에 대하여서는 반대하는 립장에 서있었다.

그리하여 리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중상을 당한것을 기화로 그 일파를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였다.

그는 리성계의 왕권탈취음모에 가담하는것을 끝까지 반대한것으로 하여 리성계의 다섯째아들인 리방원과 그의 일당에 의하여 개경(당시) 선죽교에서 살해당하였다.

저서로는 《포은집》이 있다.

본사기자

유모아

장님의 등불

한 장님이 밤에 집을 나서면서 마누라에게 등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집에 와있던 손님이 말했다.

《아니, 눈 못 보는 봉사님이 등불은 왜 가지고 나가시오?》

《흥, 그런 말 마오. 눈 못 보는 나보다 눈뜬 사람들이 가끔 가다 부딪칩디다. 그래내가 〈여기 사람이 가오.〉 하는 표시로 들고 나가는것이요.》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